

육계유통, 도덕성 회복이 시급

취재 : 권동원기자

육계산업은 크게 생산과 유통으로 나뉘어진다. 세분하면 생산에는 사료, 병아리, 기계, 기구 등 생산자재부분과 이를 이용하여 성계로 만드는 과정으로, 유통에는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인 상거래 단계와 소비자가 먹을 수 있도록 도계가공하는 상품화 단계, 소비단계로 구분된다.

이처럼 여러단계가 모여서 이루어진 육계산업은 전체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발전할 수 있다.

사양가들은 보통 육계산업하면 생산단계만 떠올리게 되고 생산단계가 전부인듯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육계산업은 생산자가 주도적 역할은 해야 하지만 제어 무리 사양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유통이 불안하면 생산자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댓가를 받지 못한다는 경험을 하고 있다.

생산자는 물론 상인, 도계장, 소비자, 부화장, 사료 회사가 다함께 공존공생할 때 양계산업은 발전할 수 있다.

유통구조 모순 상인책임으로만 돌릴수 없어

흔히 양계산업은 유통이 불안해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 거미줄처럼 복잡다양하다는 유통구조는 상인만의 책임으로 미룰 수 없는 현실이다.

사료·부화업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물건만 팔면 되고, 생산자도 출하할 때 시세만 좋으면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인 역시 양계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나만 돈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유통에 참여한 사

람들이다.

이처럼 누구나가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주체세력이 없음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현황

생산된 닭은 중간소개소를 거쳐 도매상이 가져가게 된다. 도매상은 위탁도계를 거친후 소매상에 넘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보편적인 유통경로이다.

복잡한 구조라지만 외형상 필요한 부분만이 존재하며 오히려 단순한 구조같아 보인다. 문제는 불신풍조가 팽배해졌고 도덕성이 결여되어 나만의 이득을 취하자는 현실이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풍토에서는 계열화체제가 자리잡기도 어려울뿐 아니라 계열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유통은 개선될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생산자

지역별로 널리 분포되어 있고 단합되지 못하여 정보에 어두울 뿐 아니라 사육하고 있는 닭의 출하시기에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과거 상인에게 일방적으로 당해왔던 피해의식에서 상인을 불신하여 사육되고 있는 규모를 쉽사리 드러내놓지 않아 시세형성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사양관리 개선보다는 시세에 더 치중하며 시세가 하

락추세에 있을 때는 더 떨어지기 전에 팔려는 심리에서 일시에 “내닭 먼저 팔아달라”고 홍수출하하게 되어 가격 하락을 실제보다 더 크게 조장하고 있다.

시세가 상승국면에 있을 때 더 오르기를 기대하며 출하를 기피하여 가격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일부 양축가들이 상인과 물건을 팔기로 약속해 놓고 다음날에 더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상인과의 약속을 어기며 더주겠다는 상인에게 판매하는 몰지각한 양축가가 대부분이다.

양계산업의 안정을 절실히 바라면서도 살제로는 개인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이익에 눈이 어두워 가격진폭을 더욱 크게 부채질하고 있다.

소개소

복덕방이라 할 수 있는 소개소는 육계유통에 있어서 「필요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육계출하는 일정한 양이 지속적으로 출하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에 많은 양이 출하되고 있는데 소개소가 도매시장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생산자와 상인간의 직거래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보완하여 주고 있다.

소개소를 통합으로 상인은 물량확보가 용이해졌고 생산자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었으며, 생산자 역시 가격정보에 어두워 일방적으로 당하기 쉬운 점이 배제되었고 많은 양을 출하할 때도 쉽게 출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금을 책임지므로서 도매상에 당해왔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일례로 몇달전 부도를 내었던 도매상 어음을 소개소에서 보상해준 일이 있었다.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 이들은 시세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대다수 소개업자는 안정된 가격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요즘 소개소가 난립되면서부터 정확한 물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시세가 오를 때는 물량을 확보하기 급급하여 가격을 더 올리고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물량이 남아돌아 도매상을 잡기위해 가격을 더욱 내리고 있어 소개소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다.

소개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하는 경우에는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되고 있어 90% 이상을 소개소를 통하여 거래되고 있는 현실은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마리당 대개 20원씩 지급하고 있는 수수료는 중간과정에 없어도 될 낭비적 요소이다. 이를 없앨 수 있는 방

법은 직거래나 계우회 등을 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생산자들은 “회원끼리도 시세변동에 따라 누구 닭을 먼저 빼주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얽매어 단체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어 신용과 단결이 부족한 양계업계에서 소개소는 필요악으로 계속 존재하리라 보여진다.

도매상

서울시내 도매상은 줄잡아 200여개소, 생계를 취급하던 도매상이 도계유통이 정착되면서 전환하여 83년 400여개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도매상도 거래처(소매상) 확보에 경쟁이 치열하여 때로는 적자운영도 서슴지 않고 있다.

소개소를 통하여 닭을 가져와 위탁도계를 한 후 소매상에 넘기는 역할을 하고있다. 도계장을 소유하여 자가도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많은 도매상은 저장시설도 갖추지 못해 그날 물량이 남는 경우 덩핑판매를 자행하고 있어 시장질서를 문란케하고 있다.

아직도 유언비어를 퍼뜨려 가격 후려치기를 하거나 지역별로 단합하여가격을 내리려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일부 악덕상인이 판을 치고 있다.

생산자들도 이들의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 급할때 내 물건 팔아준다는 고마움(?) 때문에 묵인하며 물건을 주고 있다. 악덕상인이 발붙일 틈을 주는 것은 생산자



이면서 생산자들은 약덕상인 때문에 못살겠다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있다.

도계장

전체 물량의 70%이상을 위탁도계에 의존하고 있고 상인이 소유한 도계장의 도계도 이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도계장은 상품에 대한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계물량을 확보키 위해 덤핑도계가 성행하고 있다.

상인의 무리한 요구로 도계율을 높이려 불가식부위를 제거하지 않고 있으며 계류장시설이 미비하여 겨울을 제외한 계절에는 도계장에 도착해서 몇시간내에 열사로 인한 폐사율이 높아 선선한 야간을 택해 도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냉장창고나 운반차량도 형식적으로 냉장시설을 해놓았을 뿐 가동하지 않고있다. 건설한 도매상은 어리장을 충분히 준비해놓고 위생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소독, 청소를 전혀 하지않고 있어 전염병 전파에 문제되고 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도계반출증을 허위로 신고하여 반입반출량 통계를 어렵게 하고있다. 이외에도 도계장에서 해결해야될 문제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일부 건설한 도계장을 제외하고는 도계장과 연관된 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외부의 도움만 기다리고 있는 도계장은 물량확보를 위해 도매상에 꼼짝없이 물려있어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영세하고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명분에서 방치만 한다면 육계산업 발전은 어렵다 보여진다.

소매상

서울시내 계육소매상은 3,500여개로 추산된다. 대부분 무허가인 이들의 특징은 산지에서 닭값이 아무리 내려도 판매가격은 꼼짝하지않으며 일주일 뒤어나 조금 내려주고 있다.

서울에서 1일 소비물량을 30만수정도로 볼때 하루 판매물량은 1백마리를 밀도는 수준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소매상은 산지가격이 낮을수록 이윤이 커진다. 실제로 도계품이 970원할 때 1500원까지 받은 적이 있어, 물량이 체화되어 가격이 떨어질때 소비촉진을 위해 가격을 내리기보다는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또한 산지가격이 올라 가면 이윤이 적어지게 되어 판매를 기피하여 값이 올라가면 판료가 막혀 인위적으로 값이 내리게 된다.

닭고기도 타육류처럼 가격고시제를 실시해야 생산자, 상인,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매상허가제를 강력하게 실시해야 한다. 허가제를 현실화함으로써 소매상의 시설과 소매업자의 자질향상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어 한걸음 앞선 육계유통이 되리라 본다.

문제점

유통구조가 복잡하다는 것은 시행과정에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을 뿐 제도상의 문제는 적다고 보여진다.

계류장, 야간도계, 냉장창고, 냉장차량, 불가식 부위 제거, 도계반출증, 무허가소매상, 소매상 냉장시설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에서 단속을 실시하면 슬그머니 숨어버리는 속성이 있어 판료가 막힌 생산자들이 아우성을 치면 정부단속도 호지부지되어 다시 처음 상태로 복귀된다. 언젠가 맞아야 할 때라면 일찍 맞는게 좋다. 시작단계부터 눈에 보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개선행야겠다.

육계산업의 최종 단계인 소매상과 소비자는 육계산업 구성에서 제외되어 있고 도매상은 이윤추구에 목적을 두고 있다. 사료, 부화업자 역시 육계산업이 존속하는 한 사료와 병아리판로는 있다.

육계산업의 중추역할은 생산자가 해야 하지만 더불어 사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생산자는 상인에게 넘기지만 하면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를 상인과 함께 책임져야 한다.

도덕성이 결핍된 육계산업에서 도덕성회복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손에 손을 잡고 불신의 벽을 넘어 우리 사는 세상 살기 좋도록 만들어야겠다. **양근리**